

지나간 학술 모임 201106-3

2011 한국하버드엔칭학회-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공동학술대회

-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통섭 II] 학회 참관기 -

지난 2011년 6월 30일 (목) 오후에 연세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2011 한국하버드엔칭학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공동학술대회가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통섭 II]라는 주제로 열렸다.

KIST의 신희섭 교수의 '뇌연구를 통한 마음의 이해'라는 인지신경과학 입문 기초강연에 이어서 1부와 2부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과학기술 융합의 전형인 인지과학에서의 융합을, 2부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과 관련된 정책 과제를 다루었다. 여기 웨에서는 정리 시일 관계상,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관이기에 2부의 정책 발표와 토론은 제외하고, 1부의 발표, 토론 내용만 발췌하여 제시하겠다.

먼저, 1부에서는 [인지과학]을 주제로 한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다루는 학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두 개의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첫번째 발표는 연세대 심리학과 및 인지과학협동과정에서 오래 동안 연구하다 은퇴한 정찬섭 교수의 [인지과학과 융합과학기술] 이라는 제목의 발표였고, 두 번째 발표는 미학을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영상이론학과에서에서 예술 및 문화, 테크놀로지를 접목하는 이론들을 탐구하는 심광현 교수의 [제3세대 인지과학과 시네마: 자본주의 매트릭스 vs 대안적 매트릭스] 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다.

두 발표는 두 발표자의 학문 배경과 각자의 과거 연구 흐름을 반영하는 미시적-절차적 접근과 거시적-개념적 접근의 대조를 이루면서 통합적인 조화를 제시하는 좋은 발표였다.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발표한 정찬섭 교수는 그동안 30여년의 활발한 시각심리, 시각인지과학, 시각감성공학 분야의 실험 및 이론모델 구성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인지과학에서의 융합이,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 과학기술에서의 융합이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수 많은 실험 및 모델 구성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실험과학자 답게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에서의 융합은 큰 학문(영역)간의 막연한 거시적 정책적 연결보다는 융합 목표의 영역 특수성, 요소기술간의 접착성,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강도에 따라 달리 접근되어야 하며 그 성공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무작정 영역간 융합을 억지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요소기술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위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목표를 제한, 구체화하여 융합을 시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인지과학이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또는 자체 내의 구성영역간 융합을 통해 [지능 입히기, 감성입히기, 사용편이성 입히기]의 세 영역에 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색채인식 연구, 표정인식 연구, 인터페이스 설계 연구 등의 구체적 실용 연구에서 인지과학의 개입. 공조 없이는 공학적 연구만으로는 목